

# “미래세대에 물려줄 무주 역사관 필요” 장수 천천초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 이해양 무주군의원, 무주 정체성 담은 역사관 조성 제안



이해양 무주군 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역사관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양 의원은 27일 열린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의 정체성,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 무주 역사관, 5분 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무주는 백제와 신라의 관문이었고 충청·경상·전라 삼도가 만나는 접점지대였다. 무주는 예로부터 분절이 아닌 연결의 거점이었다. 무주의 역사적 성격은 기록과 보존을 통해 더 생생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의 진정한 가치는 사건 위에 겹겹이 쌓여온 무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 덕유산과 적상산성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호국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투쟁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사와 항일의 역사조차도 지금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의 독보적인 역사 자산으로 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을 지목하며 “우리는 나이가 실록을 활용한 남북교류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의 발판도 꿈꾸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비롯해 실질적 전시와 학술행사의 근거인 역사관

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역사를 기록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무주 역사관에 대한 계획수립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결단 △무주 역사를 총괄적으로 담아낼 종합 기록 플랫폼 기획과 적상산 사고본 복원화 작업 추진 △민간의 유물과 기록물 기증·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역사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것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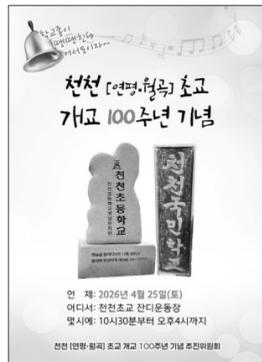
이해양 의원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실이 되고 어른들에게 자신의 삶이 기록되는 자부심이 될 역사관을 무주의 역사 서사를 확립하고 무주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무주 역사관이 미래의 무주를 설계하는 백년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손흥기 기자

### 4월 25일 개최... 작은 시골학교, 지역과 함께 걸은 교육 역사 조명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에 위치한 천천초등학교(교장 박영표)는 오는 4월 25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교생 18명, 교원 12명의 작은 시골 학교이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교육의 산실로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천천초등학교는 1926년 4월 26일 ‘천천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이후 현재까지 4,3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 때 재학생 수가 1,400여명에 이를 만큼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1981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한 데 이어 1999년 연평초등학교, 2003년 월곡초등학교와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 기반을 다져왔다.



학교는 “즐거움, 바르게, 든든하게”라는 교훈 아래 “하늘을 들여다보듯 나를 살피고 물처럼 유연하게 세상을 걷는 천천인”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며, 성장과 나눔으로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천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상임회장 이순창)는 행사 후 ‘천천초등학교 100년 사(史)’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념 책자에는 학교의 연혁을 비롯해 교육활동 사진, 총동문회 활동, 현재의 천천초등학교 모습을 조명한 다양한 자료를 담아 학교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표 천천초등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난 세기 동안 지역사와 함께 걸은 발자취를 되새기며 여러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100주년을 이어갈 재도약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순창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상임회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동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교교의 10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교가 4,314여 명의 동문을 배출해 사회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의 더 큰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세우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천초등학교는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관광 개발 소외 지역 ‘균형 발전’ 촉구

### 한국회 장수군의원, 특정 지역 편중된 지역 관광 정책 비판



장수군의회의 최 최한주) 한국회의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수군의 관광 정책을 비판하며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회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산서면에 편중된 관광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군의 관광 정책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서면 등 소외된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장수군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지공당(知今堂) △호국 유산인 호룡보루 △창원정지 종가 및 권희문 가옥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숨은 보석’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역의 잠재력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지역균형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이미 개발된 곳에 예산을 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외 지역을 새로운 관광축으로 육성할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다.

또한, “최근 트렌드에 맞춰워 고건축물과 농경문화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객을 단순 보편이 아닌 숙박과 체험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호룡보루와 3.1운동 공원 등을 활용해 관내 학생들을 위한 ‘살아 있는 향토 역사 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회 의원은 “관광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 다듬는 일”이라며, “그동안 휴 속에 묻힌 진주처럼 빛을 보지 못한 지역 내 관광 자원들을 적극 발굴해, 장수군이 누구나 머물다 가고 싶은 균형 잡힌 관광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치유도시 실현 위한 외부인 아이디어톤 현장 실험

진안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안군 일대 및 치유거리에서 치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프로토타입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지역 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외부인 아이디어톤을 통해 도출된 치유거리 프로토타입을 실제 공간에 적용·체험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치유거리를 실현 공간으로 활용해 콘텐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확산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치유도시’라는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존의 농촌 이미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 도시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다. 단순



관광을 넘어 산림치유, 힐링 체험 등 테마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수요를 확장하고, 체험형 관광을 통해 신규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지원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재해·범죄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무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무주군민이라면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비롯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에 이른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 무주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배점옥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기획 담당장은 “무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군청 누리집과 군정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통해 ‘무주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세외수입 실무 역량 강화교육 실시

무주군이 세외수입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27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는 세외수입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신규 담당자와 과태료 업무 담당자를 필수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소속 조상열 강사가 맡아 △세외수입 부과 및 세입 관리 △채납관리 및 채납처분 △과태료 관리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신뢰도, 담당자 전문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역량 개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진안군, 불용농기계 현장 매각 완료

진안군은 지난 26일 ‘불용농기계 현장 매각’을 마무리했다.

이번 매각은 내구연한이 경과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해 더 이상 임대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농기계 13종 36대 대상, 현장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각 공고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매각 대상 농기계를 전시해 농업인들이 사전에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월 26일 현장 투찰과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확정했다.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했으며, 1인당 최대 2대까지 응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매각 결과, 총 28대의 농기계가 낙찰되었으며, 별세발자기, 승용제초기, 퇴비살포기 등 일부 품목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